

효성, 미국법인에 1161억원 출자

효성아메리카에 2억5000만달러 ...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재원 마련

효성이 해외법인인 효성아메리카에 1161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출자기로 결정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, 효성은 1월27일 이사회에서 미국 현지법인인 효성아메리카에 1억2000만달러를 출자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.

효성 자기자본의 6.56%에 이르는 수준으로 2005년 전체 해외투자금액 1000억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이다.

효성아메리카는 효성이 100% 지분을 보유한 현지 자회사로 1161억원을 추가 출자하면 총 투자액이 2억5000만달러(2419억원)로 늘어난다.

국내기업 대부분의 해외법인이 판매법인이지만 효성아메리카는 타이어코드·스틸코드 등 타이어부품과 스판덱스 원사 가공공장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.

효성 관계자는 “효성아메리카에 출자한 1161억원은 차입금 상환 등 재무구조 건전화와 향후 보완투자 등의 재원으로 사용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또 “판매법인이던 효성아메리카가 2000년대 연이은 현지공장 인수를 통해 생산법인으로 변모함에 따라 재무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”고 강조했다.

재계에서는 효성이 해외법인에 대한 대규모 출자를 설 연휴 직전 공시하면서 설비투자 등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.

이에 효성 관계자는 “재무구조 개선과 향후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일 뿐”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.

<화학저널 2006/02/02>